

李汝璣의 현실인식과 실천정신

金 德 煥*

- | | |
|-------------------|----------------|
| I. 머리말 | III. 이여빈의 실천정신 |
| II. 이여빈의 현실인식 | 1. 昧死以聞의 읍소 |
| 1. 모반사건과 기축옥사 | 2. 憂國傷世의 기록 |
| 2. 영창대군의 죽음과 인조반정 | 3. 窮養達施의 처세 |
| 3. 과거제도의 폐단과 부정부패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이여빈이 남긴 『취사선생문집』에 나타난 그의 현실인식과 실천정신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이여빈은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연구논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각종 문집해제나 인명사전, 지방 문화지나 매체 등에 그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은 대체로 『취사선생문집』에 실려있는 연보와 행장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들로서 대부분 그 내용이 엇비슷하여 새로운 자료나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상소문과 <時事雜錄>, <龍蛇錄>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거기에 반영된 그의 현실인식과 실천정신을 고찰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의 생애 사적과 사상 경향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mugam20@hanmail.net

먼저 그의 현실인식은 주로 <시사잡록> 상·하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있다. <시사잡록> 상편에서는 己丑獄事와 영창대군의 사사, 인목대비의 유폐, 인조반정 등을 담담하게 풀어나갔고, 하편에서는 과거제도의 폐단과 과거시험의 부정부패, 매관매직에 대해 냉철하면서도 진보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였다. 다음으로 그의 실천정신은 4편의 상소문과 憂國傷世의 기록인 <용사록>, 窮養達施의 처세관에 잘 나타나있다. <용사록>은 바로 유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국난의 시기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지은 것이다. 그는 출세를 원하였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지만 혼탁한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출세를 위해 도의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고 고향에 은둔하여 知足安分의 삶을 살았다. 즉 그는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절개를 굽히지도 않았으며, 난세를 살아가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본적인 출처관인 窮養達施의 도리를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취사선생, 이여빈, 취사집, 취사선생문집, 용사록, 시사잡록, 영주선비

I. 머리말

李汝籲(1556-1631)은 명종 11년 영주에서 태어나 선조·광해를 거쳐 활동하다가 인조 9년에 세상을 떠났다. 자는 德薰, 호는 鑑谷 또는 炊沙로 계유정난 때 절의를 지켜 영주의 道村에 은거한 李秀亨(1435-1528)의 현손이다. 어린 시절에 그는 영주의 유학자 韓佑에게 학문을 배운 후에 청년시절에는 嘯臯 朴承任(1517-1586)의 문인이 되어 학문적으로는 퇴계학파를 계승하고 정치적 견해는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의 <師友錄>에서는 박승임의 문하에서 閔興建과 더불어 반고의 『漢書』를 배웠다고 하였고, 박승임의 <文人錄>에도 그의 이름과 함께 행적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가 몇 살 때 박승임의 문하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측해보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여빈은 36세(1591, 선조 24)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경북 義城의 한 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영주 도촌을 거쳐 감곡으로 돌아왔으나 전란으로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그 후 7년에 걸친 왜란이 끝났으나 47세(1602, 선조 35)에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마치고 50세(1605, 선조 3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광문과에 동향 출신 水西 朴善長(1555-1616)과 함께 입격하여 이듬해에 碧沙道察訪(종6품)에 제수되었다. 벽사도는 전라도 장흥의 벽사역을 중심으로 한 驛道로 관할 범위는 장흥·강진·해남·진도에 이르렀다. 52세(1607)에 差使員으로 선발되어 상경하면서 장문의 <西行長篇>을 지어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직접 목도하고 무한한 동정을 보냈다. 그 이듬해에 혼탁하고 부패한 세상에 영합하기를 거부하고 홀로 계신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에 힘쓰다가 일생을 마쳤다.

지금까지 이여빈은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연구논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각종 문집해제나 인명사전·지방문화지나 매체 등에 그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은 대체로 『취사

선생문집』에 실려있는 연보와 행장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대부분 그 내용이 엇비슷하여 새로운 자료나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2015년도에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에서 『취사선생문집』이 최초로 번역 출판되었고, 그 이듬해에 김장환의 「취사 이여빈의 상소문 연구」(『한국선비연구』 제4집)와 권경록의 「취사 이여빈이 만든 심상공간, 鑑谷」(『동양한문학회』 제44집)이 발표되었다. 특히 김장환은 이여빈이 정유재란과 계축옥사 시기에 재야유림으로서 지방 유림들을 대표하여 지은 네 편의 상소문(〈請親征疏〉·〈兩先生辨誣疏〉·〈請罪李爾瞻疏〉·〈請全恩疏〉)의 내용과 그 사상적 특징에 대해 최초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들 상소문에는 명석한 논리와 판단력으로 군신간의 도의를 지키면서도 정성을 다해 임금에 설득한 상소문의 문체적 특징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선비로서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상소를 통하여 임금과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고, 폭넓은 학식과 강직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사와 경전의 적절한 인용을 통한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해가면서 당대의 복잡 미묘한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고 분석하였다.¹⁾

본고는 취사 이여빈에 관한 세 번째 연구가 되는 셈인데, 여기서는 그의 문집에 수록된 상소문과 〈時事雜錄〉·〈龍蛇錄〉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거기에 반영된 그의 현실인식과 실천정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사상 경향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II. 이여빈의 현실인식

이여빈이 살았던 시대에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남명 조식과 같은 대학자들의 훈도 아래 사림세력이 급성장하여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무한

1) 김장환, 「취사 이여빈의 상소문 연구」, 『한국선비연구』 제4집,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6, pp60-61.

히 확대되었지만, 그들 내부에서는 정치적 견해와 학문적 경향의 차이로 인하여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대북과 소북 등으로 분열되었다. 그들은 상대 정파에 대한 보복적인 탄압과 처형으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서인과 남인세력이 연합한 인조반정의 성공으로 광해군과 북인세력이 몰락하면서 시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와중에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한반도를 유린한 왜적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후금의 병자호란으로 국토는 피폐해지고 민생은 고통에 허덕였다. 당시의 그러한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이어빈은 <時事雜錄>([『취사선생문집』 권4-5)에 여러 편의 정치적 사건으로 나누어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를 통해 그의 현실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1. 모반사건과 기축옥사

1567년 조선의 14대왕 선조가 즉위했을 때 이어빈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이때는 이미 훈구파가 몰락하고 정국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1575년(선조 8)에 이르러 金孝元과 沈義謙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당쟁이 일어나 사람들은 김효원을 지지하는 동인, 심의겸을 지지하는 서인으로 분열되어 조정이 시끄러워졌다. 1584년에 심의겸이 탄핵으로 파직되면서 서인의 기세가 먼저 꺾인 듯 했으나, 1589년(己丑年)에 서인을 배반하고 동인계로 돌아선 정여립의 모반사건에 동인이 연루되었다고 하여 1589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천여 명에 달하는 동인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己丑獄事라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동인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가혹해져 李潑·李洁·金宇顥 등 동인의 핵심인물과 추종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유배당하였다. 그러나 1591년에 서인의 핵심인물 鄭澈이 세자책봉 문제로 실각하자 이를 계기로 다시 정권을 잡은 동인세력은 서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규모의 유혈 숙청을 단행하였다. 이 때 서인의 핵심인물 정철의 치죄 문제를 두고 동인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어 사형을 시

키자는 복인과 귀양을 보내자는 남인으로 대답하면서 동인은 내부적으로 다시 복인과 남인으로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이여빈의 행적에는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고 스승 한우의 문하와 영주군수 허충길·이희득의 가르침을 받으며 과거응시를 위한 소양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의 <시사잡록>에서는 정여립 모반사건과 기축옥사(1589)에 이어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이몽학 모반사건(1596)과 왜란 후의 길운절 모반사건(1601)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여립 모반사건은 일반적으로 당시 서인의 참모 격으로 활약한 노비 출신인 宋翼弼이 자신과 그의 친족 70여인을 다시 노비로 전락시키려는 동인의 이발·백유양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설, 당시 倭官으로 있던 정철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설, 李珥가 죽은 뒤 열세에 몰린 서인이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는 설, 당시 전제군주정치 아래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선양에 의한 왕위계승 방식을 주장하는 등 혁명성을 가진 주장을 한 정여립의 역모설 등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아직도 정설이 없다.²⁾ 그런데 이여빈은 여기에서 정여립의 모반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화를 동인들에게 연루시킨 데 대해서는 “정철이 倭官이 되어 그들을 국문하고 죄를 조작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화가 미쳤다.”³⁾라고 기록하여 정철의 조작설이라는 동인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한때 名士로서 이름을 날린 白惟讓과 李潑·李洁, 산림의 고고한 逸士로 널리 알려진 崔永慶·鄭介淸 등이 모두 조작된 죄에 걸려들었다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정여립 모반사건을 고변한 韓應寅·李軸·朴忠侃에 대해서는 모두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封君을 받아 부귀를 누렸다고 조소하였다.

또 임진왜란 와중에 혼란한 민심을 틈타 반란을 일으킨 이몽학 사건과 전란이 끝난 후 제주도에서 蘇德裕와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킨 길운절 사건에 대해 짚막하게 그 전말을 기술하였다. 이몽학은 일본의 재침을 방비를 위한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己丑獄事’, 한국학중앙연구원.

3)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鄭澈爲倭官 推鞫羅織 多及於無辜”

산성 수축 등에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빌미로 불만에 찬 백성들을 선동하여 충청도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관군에 의해 어렵지 않게 진압되었지만 그로 인해 金德齡·郭再祐 등 무고하게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그 후유증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여빈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당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한 면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운절에 대해서는 그 역모를 인정하고 경상도 선산 출신인 그의 고향 사람들이 이를 수치로 여겨 함께 모여서 조정에 상소문을 올리고 길운절의 집을 철거하여 그 처자들을 일반 백성들과 섞여 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 다음, “고려 말 충신인 注書 吉再의 후손인데 집안 대대의 가풍과 절개를 실추시키고 멸절시켜서 마음이 아프다.”⁴⁾라는 탄식을 발출함으로써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선비의 절개를 표출하였다.

2. 영창대군의 죽음과 인조반정

7년에 걸친 왜란이 끝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할 때, 이이첨과 鄭仁弘·柳永慶 등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복인세력은 선조의 뒤를 이을 왕위 문제를 두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로 나뉘어 치열한 암투를 벌였다.

1608년 정월 그믐 무렵 지병으로 위독해진 선조는 병상에서 광해군과 여러 왕자들에게, ‘동기간 보기를 내가 있을 때와 같이 하라(視同氣 如予在時)’는 유언을 남겼다. 이여빈은 <시사잡록> 상편에서 선조의 이 유언을 들어 광해군이 즉위 후에 영창대군을 사소한 것이 부모의 명을 거역한 패륜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내관 閔希謩의 살해사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내용인데, 선조가 총애하던 내관 민희건이 당시에 선조의 이 유언을 승정원에 보냈으나 나중에 이를 안 광해군은 민희건이 선조의 필적을 날조한 것이라 단정하고 처형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여

4) 『炊沙先生文集』卷4, <時事雜錄>上. “麗末忠臣注書再之後 陰滅家世風節 痛矣”

기에서 민회건이 죽음에 임하여, “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도 죽히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애석하도다. 선왕 어필의 글씨체를 닳추어 늙은 신하에 비유하다니.”⁵⁾라고 탄식한 말을 인용하여 선조의 유언이 결코 날조된 것이 아님을 부각시켰다. 그리고는 임해군과 유영경의 옥사, 문경 조령의 은상인 살해사건과 金梯南의 역모사건, 영창대군의 사사와 인목대비의 유폐, 이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참담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여기에서 이여빈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이이첨과 정인홍을 비롯한 복인세력이 있음을 밝히고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논하였다.

당시에 한음 이덕형은 영의정으로서 그들의 패륜적인 논의에 동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창대군의 원통함을 소명하는 筭記를 올렸다가 몰래 역적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쫓겨났다. 이 대목에서 이여빈은 이덕형이 훗날 화를 면하기 어려움을 알고 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기술한 다음 이덕형의 행위를 의롭고 현명하다고 칭송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였다.

한음이 장차 다시 차기를 올렸다가 내쳐져서 도성에서 쫓겨났는데 마침내 화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아버지에게 영결을 고하였다. 그 아버지는 조용히 함께 영결하며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면서도 말과 얼굴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음이 절을 하며 하직하고 나가서 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아버지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 아들을 현명하다고 여겼다.⁶⁾

일반적으로 이덕형은 관직에서 물러나 국사를 걱정하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여빈의 기록대로 이덕형이 음독자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그에 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여빈은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서

5)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嘆曰 臣愚死不足惜 惜乎 以先王御筆之跡 下比於老臣也”

6)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漢陰將復上劄而被斥出城 知終不免 永訣于其父 其父從容與訣 呼酒引滿 不動辭色 漢陰拜辭而出 仰藥而卒 聞者莫不義其父”

『광해군일기』에는 이이첨 등의 명을 받은 강화부사 鄭沆이 영창대군을 굶겨서 죽게 하였다거나 정항이 온돌을 뜨겁게 달구어 영창대군을 蒸殺했다고 되어 있고, 『인조실록』에는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別將 李廷彪가 음식물에 찻물을 넣어 영창대군을 죽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 논란이 있다. 그런데 이여빈은 <시사잡록>에서 정항이 “찻물로 쌀을 씻고 그 물로 국을 끓였다. 그 물을 어린 아이에게 가져다주니 어린아이가 오래 굶주려서 먹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며칠이 되지 아니하여 창자와 위가 썩어문드러져서 죽었다.”⁷⁾라고 하여 『인조실록』의 기록에 신빙성을 더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영창대군이 죽은 후에 상소문을 올려 정항에게 죄를 주기를 청한 鄭蘊에 대해서는 그 말이 심히 과격하고 절실하여 크게 진노한 광해군이 정온을 禁府의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때 우의정과 原任大臣들이 모두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죽음을 사해 달라고 청원하였으나 오히려 좌의정 정인홍은 “정온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사면할 수가 없는 것”이라 상소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 아래에서 이여빈은 정온이 실제로는 정인홍의 문하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자신의 제자였던 정온을 다른 한편으로는 구명하였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술한 점이 주목을 끈다.

정온의 늙은 어머니가 정인홍에게 말을 전하여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정인홍은 이를 거절하며 허락하지 않고는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이이첨에게 편지를 보내어 정온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아마도 정인홍은 밖으로는 아첨하는 말로 광해군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그 충애를 굳게 하고, 안으로는 문하생에게 은혜를 대충 베풀었을 따름이다.⁸⁾

7)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因以石灰水浙米 又以其水作湯 水進之穉兒 久飢 不得不食 而未數日 腸胃腐爛而死”

8)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蘊之老母 送言於仁弘 請免其死 仁弘拒之不許 而陰使人抵書於爾瞻 使不至死 蓋仁弘 外爲諛辭 以順光海之意 自固其寵 內略施恩於門生而已”

그러나 어릴 때 정온과 절친했던 邢孝甲이 鄭潔 등과 더불어 광해군의 뜻에 영합하고자 상소를 올려 정온을 죽이라고 청한 데 대해서는, “형효갑은 실제로 정온과 성을 달리하는 형제이다. 어려서 정온의 부친에게 수학하였고 정온의 모친도 머리를 빗어주고 어루만져 길러서 은혜와 의리가 지극하게 있었는데 형효갑이 상소를 지어서 정온을 모함한다는 소문들 듣고 크게 상심과 탄식을 하였다.”⁹⁾라고 한 다음 그 어머니의 탄식에 형효갑을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평설을 덧붙였다. 여기에서 이여빈은 정온에게 사제간의 의리를 조금이라도 지킨 정인홍에 대해서는 비록 여러 군데서 정인홍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스승으로서 마지막 의리를 지킨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하였고, 정온의 친구로서 부친에 대한 사제간의 의리를 동시에 저버린 형효갑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무도한 인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이 혈육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패륜적인 사건은 그때까지 대북파의 위세에 눌려있던 서인 세력에게 반전의 구실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1623년(광해군 15) 李貴를 비롯한 서인파는 마침내 광해군과 집권세력인 이이첨 등의 대북파를 몰아내고, 綾陽君(인조)을 왕으로 옹립하는 인조반정을 일으켜 성공하였다. 이 반정의 성공으로 대북파는 몰락하고 서인세력이 다시 정권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여빈은 당시의 정국혼란과 광해군의 국정농단을 언급하면서, “만년에 국가의 기밀사무를 오로지 궁녀와 비빈들에게 맡기고 날마다 놀이와 잔치를 일삼았다.”¹⁰⁾라고 광해군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과중한 부역과 폭정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인조반정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당시에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분노와 원망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오고가니 식자들은 모두 염려하였다.
만약 이때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민심이 흠처럼 무너지는 근심이 있을 것인데,

9)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孝甲實鄭蘊異性兄弟也 幼從蘊之父受學 而蘊之母櫛梳撫養 極有恩義 及聞孝甲 爲疏陷蘊 大加傷歎”

10)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光海晚年 國家機務 專委宮嬪 日以遊宴爲事”

집권한 사람들은 임금의 뜻만 따르고 받드는 것을 충성이라 여기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원망을 받는 것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方外의 수령들은 오로지 그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만을 급선무로 삼아 농기구를 죄다 거두고 밭가는 소를 모두 팔아먹어도 구휼하지 않았으며, 公卿의 집안도 또한 防納으로 일을 삼아 苛斂誅求의 포악함이 곤궁한 백성에게까지 이르렀다.¹¹⁾

이에 인조는 그때 潛邸에 있다가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해 金瑬·李貴·洪瑞鳳·李曙 등의 모의를 받아들여 반정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이여빈은 여기에서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3. 과거제도의 폐단과 부정부패

이여빈은 과거제도의 폐단에 대해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대구에만 힘쓰고 남의 문장을 표절하여 과거답안지를 작성하는 풍조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광해군 때에 이르러 과거시험이 극도로 문란해져 대제학 이이첨이 사사로운 술수로 인재를 채용하고 시험문제를 자기 당파 사람들에게 미리 유출함으로써 이미 인재선발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는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許筠이 경술년(1610) 별시의 시관으로서 그 조카 許篈를 부정하게 입격시킨 사례를 꼬집어 비판하였다. 허균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불잡혀 국문을 받았고 그의 조카 허요는 입격이 취소되었다. 또한 이여빈은 정사년(1617, 62세) 가을 증광시 때 자신이 직접 김천에서 치러진 증광시의 右道東堂枝査로서 시험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 목격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과거응시자들 중에 간혹 나와 시험관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편지가 바깥

11) 『炊沙先生文集』 卷4, <時事雜錄>上. “忿懣發於常談 識者皆以爲憂 設於此際有外寇民心將有土崩之患 而執權之人 以順旨承奉爲忠 剝割斂怨爲能 方外守令 祇以奉行其令爲急 括及農器 鬻盡耕牛 不以爲恤 公卿之家 亦以防納爲事 誅求之暴 及於窮閭下戶”

에서 연이어 날아 들어가서 그 번거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시험 감독관들이 또한 편지를 자유롭게 펴서 읽어볼 수 없음에도 그때 서로 돌아보며 가만히 말하기를, “이것은 아무개의 편지이고, 정승 아무개의 청이고, 관리 아무개의 부탁입니다.”라고 하면서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차례대로 놓았는데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¹²⁾

여기에서 이여빈은 과거시험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차라리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초연히 고상하게 행동하면서 남에게 청탁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세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¹³⁾ “아, 과거시험의 불법행위가 이미 구제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어버렸다.”¹⁴⁾라고 침통한 탄식의 소리를 발출하였다.

또 이때는 부정행위의 양상도 한층 다양하게 발전하여 남을 대신해서 시험을 쳐주는 방법까지 만연하였다. 광해군 때 이이첨의 제술관으로서 전문적으로 대리시험을 쳐주었던 전력이 있는 李再榮은 변려문에 뛰어나 오랫동안 명나라 사신이 오면 筆札을 맡았고, 과거시험 때마다 남의 글을 대신 지어 주었으며, 특히 이이첨의 여러 아들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 인조반정 후에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재영과 李璉 등을 붙잡아 국문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을 낱낱이 자복하였다.

그들이 전후로 답안을 대리로 작성하여 대과와 소과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써서 바치자 무려 수백 명에 이르렀으며 광해군 때 권신 자제들의 명단이 그 안에 다 있었다고 하였다.¹⁵⁾

12)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而舉子輩或有知余及試官者 簡札自外聯翩而入 不勝其煩 考官等亦不得自由展券讀 時相顧潛謂云 此某也之券 某相某之請 某官某之囑 以次第其高下而已 無一人不出於此者”

13)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況超然高舉無求於人者 視此世爲如何耶”

14)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噫 科舉徇私已爲難救之弊”

15)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渠等前後所借述登大小科人姓名以進 多至累數百人 廢朝時權宰子弟皆在其中”

임진왜란 이후에 관직임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즉 전란으로 가산을 다 잃어버린 사대부들이 나라의 예산 부족으로 녹봉도 반으로 줄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방관으로 내려가길 선호했다는 것이다. 이어빈은 이들의 행태를 꼬집어서 마치 당나라 말기에 지방에서 매관매직을 일삼던 債帥¹⁶⁾와 같았다고 비판하였다. <시사잡록> 하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로 관직에 나간 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고변하였다. 특히 광해군 때에 극성했던 매관매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광해군 때에 이르러 벼슬길은 오직 뇌물로만 나갈 수 있었다. 지방의 監兵使·통제사, 각 浦의 僉使·萬戶에서 아래로 監牧官, 여러 고을의 목사·부사·군수·현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해진 가격이 있어서 만약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절대로 후보자 명단에 올라 낙점될 리가 없었다.¹⁷⁾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매관매직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호남에서 벼슬자리를 구하기 위해 뇌물을 상납한 어떤 邊帥의 이야기, 백금 천여 냥으로 통제사를 샀다가 부임하러 가던 길에 죽었다는 李廷彪 이야기 등은 다소 익살스러우면서도 비판적인 요소가 강해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부정이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고려 명종 때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벼슬길이 혼탁하여 사람 그 자체를 중시하지 않고 오직 재물만을 중시하다보니 관청의 노비와 같은 천민들도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당시의 時弊를 꼬집었다. 그런 다음 그

16) 債帥는 채권자의 총수라는 의미로서 뇌물을 바치고 장수가 된 사람을 기롱하여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 大曆 이후 정치가 부패하여 장수가 되려는 사람이 많은 뇌물을 中官에게 바쳤으며, 벼슬을 얻은 뒤에는 백성에게 빚을 쥐 이자를 갑절로 받아들였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17) 『炊沙先生文集』卷5, <時事雜錄>下. “逮至光海時 仕路專出於賄賂 外方監兵使統制使各浦僉使萬戶 下至監牧官列邑牧府使郡守縣監 皆有定價 若不滿其數 萬無參望受點之理”

는 자신이 벼슬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근래에 토목공사와 가무·여색으로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 어찌 군자가 즐거이 벼슬할 때이겠는가! 나는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으나 廣文先生 같은 빈한함을 마다하지 않았다.¹⁸⁾

광문선생은 당나라 때 국자감에 딸린 廣文官의 박사와 조교 등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의 녹봉이 아주 박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학자나 관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여빈은 자신이 비록 광문선생처럼 가난하게 살지라도 매 관매직과 국정농단으로 혼탁해진 세상에 군자로서 결코 벼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청탁을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이여빈의 실천정신

난세를 당하여 어떤 처신을 하느냐는 한 개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다. 이여빈은 전란과 옥사,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면서 선비로서 의리와 지조를 잃지 않고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며 유가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당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모 봉양을 명분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은거하여 陶淵明의 <귀거래사>에 차운하였지만, 결코 전원생활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국난의 시기마다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였다. 또한 비록 왜란 시에 의병을 일으켜 직접 왜적을 소탕하는 전장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문인으로서 당시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거울로 삼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주자서절요』를 접한 이후 성리학의 가치를 깨닫고 정좌하여 한가롭게 거함에 공경을 다하고 행동

18)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近年以來 土木聲色傷民病國之事無所不爲 此豈君子樂仕之時哉 余窮不能自存不嫌廣文之冷”

에 미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썼다. 그의 이러한 유가적 실천정신은 다음과 같이 昧死以聞의 읍소와 憂國傷世의 기록, 窮養達施의 처세로 표출되었다.

1. 昧死以聞의 읍소

昧死以聞이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상소문의 마지막에 흔히 쓰던 표현이다. 이는 옛선비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 임금에게 부당한 일을 고변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여빈은 정유재란과 계축옥사 시기에 재야유림으로서 지방 유림들을 대표하여 네 편의 상소문을 지었는데 그 중 두 편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취사선생문집』 권2에 실려있는 이여빈의 상소문 네 편은 선조에게 올린 <請親征疏>와 광해군에게 올린 <兩先生辨誣疏>·<請罪李爾瞻疏>·<請全恩疏>이다.

1597년(정유년) 가을에 왜적들이 다시 군대를 풀어서 호남을 함락시키고 여러 고을들에 분탕질과 노략질을 하였으며 경기도와 충청도 등지를 거의 모두 유린하였다. 이에 온 나라 안이 다시 전란에 휩싸이게 되자 그는 포의의 신분으로 붓을 들어 선조에게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왜군을 정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엎드려 생각건대, 민심의 이합은 임금의 행동거지에 달려있으니, 행동거지가 합당하면 민심이 기뻐하여 흠처럼 붕괴되는 형세를 구제할 수 있고, 행동거지가 합당하지 않으면 삼군이 해체되어 멀리서 쳐들어오는 우환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도모하려는 자는 반드시 민심을 따라야 하고, 침범을 막으려는 자는 반드시 사기를 고무시켜야 하니, 그 기틀은 임금의 일신에 달려 있습니다.¹⁹⁾

19) 『炊沙先生文集』 卷2, <請親征疏>. “伏以人情之離合 繫於人君之舉措 舉措得其當 則人情感悅 而土崩之勢可救 舉措失其當 則三軍解體 而長驅之患莫遏 是以 欲謀興復者 必因人情 欲遏憑陵者必鼓士氣 其機在於人主之一身矣”

그는 이 <청친정소>의 서두에서 민심의 이합은 임금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반드시 민심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결말에서 한 치의 물러남도 없이 나아간다면 종묘사직과 신하와 백성이 모두 다행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왜란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갑작스런 변란에 두렵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조가 의주까지 몽진한 것은 부득이한 임기응변책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침략에 대해서는 이미 왜적을 대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사들의 사기를 잘 진작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가 또 남송 고종의 臨安 천도를 예로 들어 “임금이 떠나가면 백성들은 희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²⁰⁾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임금이 희망인 이유는 자신들을 태평천하로 인도해 줄 사람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에게 있어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나라에 있어서 임금은 백성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1610년(광해군 2)에 東方五賢이라 일컬어지는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의 문묘 종사가 결정되자 그 이듬해 3월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정인홍이 <晦退辨斥疏>를 올려 이언적과 이황을 출처의 도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림들 사이에 큰 파란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정인홍을 비판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줄을 이었지만 광해군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인홍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전국 팔도에서 정인홍의 처벌을 주청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갔으며, 이어빈도 이때 <양선생변무소>를 지어 그러한 유생들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당시 대북파의 중심인물인 이이첨과 정인홍은 임해군과 유영경을 사사하는 등 소북파를 숙청하고 영창대군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문경 조령 은상인 살해사건이 터지자 이를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金悌男의 역모사건으로 조작하여 대형 옥사가 일어날 조짐이 가득하

20) 『炊沙先生文集』 卷2, <請親征疏>. “一人之去非盡徙中原之民也 而一人之既去則民無係望”

였다. 이에 그들의 만행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있
은 후에 이어빈도 이이첨의 논죄를 청하는 <청죄이이첨소>를 지었다.

이이첨은 전하께서 믿고 총애하는 신하입니다. 이이첨의 권세와 지위는 전
하께서 빌려주셨으며 이이첨의 기세는 전하께서 차용해주셨으니, 그가 권세
를 탐하여 끼고 私門을 세운 것은 이와 같아서입니다. 사람의 영화와 쇠락을
그가 장악하고 있으니, 그를 따르는 자는 영화롭게 해주고 그를 거역하는 자
는 쇠락에 빠지게 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단지 그가 있는 것만을 알 뿐이고 전
하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진실로 그러함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리된 것이니, 어찌 반드시 임금을 받들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
야 그리 되겠습니까?²¹⁾

일개 시골 선비에 불과한 이어빈으로서 당시의 조정대사를 좌지우지 하던
이이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였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이이첨의 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
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엿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해와 달 같은 밝음으로 이이첨을 자세하게
살펴서 빨리 임금의 결단을 돌리시어, 이이첨의 권세를 빼앗고 이이첨의 죄악
을 바로잡아서 먼 곳으로 내쫓아 사약을 내리시고, 그 나머지 韓纘男·朴鼎
吉·李偉卿 등 사냥개의 무리들을 차례로 그 처자까지 주륙하여, 후세의 전하
에 대한 비웃음을 금일의 德宗에 대한 비웃음과 같지 않게 하신다면, 종묘사
직이 심히 다행이고 나라가 심히 다행일 것입니다.²²⁾

21) 『炊沙先生文集』卷2, <請罪李爾瞻疏>. “夫爾瞻殿下之信倖臣也 爾瞻之權位 殿下假
之 爾瞻之氣勢 殿下藉之 其所以貪權挾勢營立私門者在所然矣 人之榮悴在渠掌握 順
者榮之 逆者悴之 一國之人徒知有渠 不知有殿下者 自有所不期然而然者 豈必待有無
將之心而後爲之哉”

22) 『炊沙先生文集』卷2, <請罪李爾瞻疏>. “今者爾瞻之奸邪陰賊實浮於盧杞之藍面鬼色
而殿下不之察焉 以爲忠賢 而謂之休戚與同 擬諸社稷之臣 臣等竊恐建中之亂不獨在
於唐室而迫在於今日矣 伏願殿下曲照離明 亟回乾斷 奪爾瞻之權位 正爾瞻之罪惡 黜
而遠之 賜之以死 其餘韓纘男朴鼎吉李偉卿鷹犬之輩次第孥戮 不使後世之笑殿下猶今
日之笑德宗 則宗社幸甚 國家幸甚”

이여빈이 이 상소문을 쓴 이듬해(1613)에 그의 셋째 아들 李成材도 <請斬李爾瞻訴>를 지어 이이첨의 국정농단 행위를 진나라 환관 趙高보다 심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는 남송의 秦檜와 같으니 그를 반드시 죽여 싸늘한 시신이 되게 할 것을 간절하게 청하였다.²³⁾ 이성재 역시 부친의 뜻을 계승하여 상소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으나 도중에 부친의 병환으로 상소를 바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여빈과 그 아들 이성재는 선비로서 의리 정신에 입각하여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난정을 계속하고 있는 이이첨 일파의 악행들을 신랄하게 규탄하였는데, 여기에서 불의에 불복하고 도의를 내세워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선비로서의 강인한 정신을 찾을 수 있다.

1613년(광해 5) 3월에 <청죄이이첨소>를 지어 이이첨의 단죄를 청하였지만 결국 영창대군은 폐sein되고 김제남 등이 사사되는 계축옥사가 일어났다. 이어서 이이첨 일파는 영창대군의 주살과 인목대비의 유폐를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이여빈은 모친의 삼년상에도 불구하고 비분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영창대군의 처형을 반대하는 <청전은소>를 지었다. 비록 권간들의 방해로 상소문이 광해군에게 전달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이 상소문에서 아직 여덟 살의 어린아이에 불과한 어린 영창대군을 당쟁의 희생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광해군을 의롭지 못한 패륜의 늑에 빠뜨리고 있다고 역설하였다.²⁴⁾

엿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끝내 순임금의 효심을 마음으로 삼으시고 후세의 잘못을 경계로 삼으시어 골육으로 하여금 단란하게 하고 모자로 하여금 처음과 같게 하신다면, 지극한 화목을 부를 수 있고 太平을 이르게 할 수 있어서, 전하의 德輝가 청사를 비출 뿐만 아니라, 선왕의 하늘에 계신 명령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²⁵⁾

23) 『炊沙先生文集』 附西巖集, <請斬李爾瞻疏>. “臣伏見賊臣李爾瞻秉政十年 窮兇極惡 無所不至 勢焰薰天炙手可熱 樹立徒黨恣行胸臆 陰懷異志蠱毒愈肆 亂政甚於趙高 賣國同於秦檜 …… 三司臺官論罪於前 館學儒生繼起於後 庶使老奸骨寒而心死”

24) 『炊沙先生文集』 卷2, <請全恩疏>. “今者璣則本以八歲童子深居大內 日處母后膝下 惟知索果而啼 弄雛而戲 何知外間事耶 此則人之所共知者 而左右之所以爭之不已者 徒知討逆之名 而不知陷殿下於不義悖倫之地矣”

이여빈은 광해군에게 인목대비에 대해서는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고, 영창대군에 대해서는 형으로서 우애를 베풀어 인륜의 도리를 지킬 것을 간청하여 광해군으로 하여금 불의와 패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린 광해군이 유교의 기본 가치마저 실천하지 못하고 선조의 적통인 영창대군과 그 어미에게 살상의 위해를 가한다면 임금으로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성의 발언이기도 하였다. 그는 노모의 봉양을 위해 관직을 그만두었으며 부모의 상에는 삼년상으로 효성을 다했다. 이러한 孝友의 실천은 <청전은소>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여빈의 집안은 대대로 절의를 숭상한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성계의 조선왕조 건국에 불응하여 순흥으로 낙향한 이억,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품고 도촌에 은거하여 拱北軒에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킨 이수형의 절의정신은 이여빈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었다. 그는 광해군 2년에 성균관 전직에 임명되었으나 광해군의 왕위등극과 이이첨 등의 국정농단에 불만을 품고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 이성재는 아예 출사를 거부하고 과거조차 보지 않은 것으로써 선조의 적통인 영창대군에 대한 절의를 지켰던 것이다. 그가 광해군에게 올린 세 편의 상소는 바로 그러한 절의정신에 입각해서 광해군과 대북파의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질책한 것이다.

2. 憂國傷世의 기록

이여빈은 1592년 4월 임진왜란의 발발로부터 1597년 정유재란을 거쳐 1598년 왜란이 모두 끝날 때까지의 전황과 역사적 사실, 영주지역의 상황 등을 기록하여 <龍蛇錄>([『취사선생문집』 권4 雜著]이라 하였다. 제목으로 사용된 ‘龍蛇’라는 말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용(龍)의 해인 壬辰年(1592)과 뱀(蛇)의 해인 이듬해 癸巳年(1593)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흔히 임

25) 『炊沙先生文集』 卷2, <請全恩疏>. “伏願殿下終能心大舜之心 戒後世之失 使其骨肉團圓 母子如初 則至和可以召 太平可以致 非但殿下之德輝映於青史 先王在天之靈必能慰悅於冥冥”

진왜란을 ‘龍蛇之亂’이라고도 한다.

이여빈은 <용사록>에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기록하면서 전란의 참상과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도하고 그것을 가슴아파하며 진심어린 동정을 보냈다. 그는 <태이 하수일 시에 차운함(次河太易受一韻)>이라는 시에서 “7년 전쟁에 전란은 그치지 않았는데, 유생이 어찌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합당할까”²⁶⁾라고 하였는데, 그의 <용사록>은 바로 유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국난의 시기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지은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경복 의성에서 과거공부를 하고 있다가 왜구가 부산포에 상륙한지 이틀이 지난 4월 15일에 난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3일 영주 감곡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영주와 풍기·순흥 지역은 아직 왜군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관군과 백성들 모두 우왕좌왕 하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여빈은 <용사록> 4월 27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풍기로부터 셋길을 따라서 大夫人이 피난한 장소를 나아가 살펴보니 방어사와 諸公들이 모두 죽령을 넘어 가버려서 한 道의 안이 다시는 주인이 없어져 버렸고 상황이 급박하자 여러 고을의 수령들도 모두 다 머리를 싸매고 쥐구멍으로 쥐처럼 도망쳤다. 영주군수도 영월군의 경계로 들어가서 강원도로 도망을 가버렸다. 이로부터 어리석고 사나운 사람들이 모두 무법천지라 생각하여 다시는 꺼리는 일이 없이 약육강식의 상황이 되면서 칼로 서로 찌르고 베면서 무심한 듯 임금과 아버지가 있고 나라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²⁷⁾

26) 『炊沙先生文集』 卷1, <次河太易受一韻>. “七載干戈戰不休 儒生豈合任閑偷”

27) 『炊沙先生文集』 卷3, <龍蛇錄>. “自豐基進從間道 就省其大夫人避亂所 防禦使諸公皆由竹嶺而去 一道之內更無主者 列邑守令悉皆捧頭鼠竄 榮倖亦入寧越境 將由江原道遁去 自是愚悍之人 皆以爲無法 不復忌憚 強食弱肉 相刃相鬪 漠然不知有君父有邦憲矣”

비록 왜란 초기 영주지역의 상황을 기술한 것이지만 당시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집정자들과 흉흉한 민심을 잘 대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영주지역은 이여빈의 처삼촌인 백암 金玪(540-1616)이 안집사로 부임하여 혼란을 수습하였다. 김록은 1592년 4월 하순경에 경상좌도 안집사로 임명되어 8월~9월에 잠시 안동부사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안집사로 부임하여 그 이듬해인 1593년 4월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김록은 전란 초기에 경상좌도 안집사로서 민심수습과 결사항전을 독려하는 임무를 맡아 활동하였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때 항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의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여빈의 <용사록>은 관군과 유림들의 활동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경상우도 招諭使를 맡은 김성일에 대해 “공은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병사들을 불러 모으며 왜적을 사살하거나 포획한 것이 자못 많아서 경상우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공에게 돌아갔다.”²⁸⁾라고 하여, 임진왜란 발발을 사전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은 김성일의 전란시 대처 활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물론 객재우를 비롯한 김면·정인홍·박성 등의 의병활동도 함께 기술하였으나, 김성일이 당시에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을 포창하고 장려하여 경상우도의 의병이 타지역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거병할 수 있었다고 진단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전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남지역에 監司를 파견하였는데, 경상우도의 감사는 金晬가 부임하였으나 경상좌도의 감사는 李聖任이 임명을 받고도 겹이 나서 부임하지 않았다. 이에 경상좌도는 안집사 김록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이때 이여빈은 처삼촌인 김록의 일을 어느 정도 보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적들이 5월에 예천을 점령하고 감천까지 이르렀으나 영주로 들어오지 않고 안동으로 내려갔다.

이때까지 경상좌도에는 의병이 거병하지 않았는데 경상우도에 의병이 창

28) 『炊沙先生文集』卷3, <龍蛇錄>. “公盡心宣諭 收拾人心 招集兵民 殺獲頗多 右道之人悉皆歸心”

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안집사 김특이 좌도의 선비들에게도 의병을 일으키기를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예안의 柳宗介, 안동의 任屹이 춘양에서 거병하였고, 영주에서는 金蓋國, 안동에서는 金垓, 예천에서는 李介立, 풍기에서는 朴洵을 대장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어빈은 영주를 비롯한 경상우도의 의병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상좌도를 비롯한 타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기술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으나 오직 객재우가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그 병사들도 정예병이었으며 병사의 운용도 잘하여 “싸우지 않은 날이 없고 싸우면 이기지 않은 적이 없다(無日不戰 戰無不勝)”라고 김성일이 올린 장계의 말을 빌려 객재우의 전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경상우도의 의병들은 군관과 한량을 따지지 않고 오직 군사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뽑은 까닭에 병사들이 모두 정예병이었고 그들이 향하는 곳마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지만, 자신의 고향인 경상좌도의 의병들은 군사적인 재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오직 용기가 없는 土類들을 몰고 다닌 데다 장수들도 전과를 올릴 의지가 없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왜란의 발발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 그 이듬해 가을에 흉년이 심하게 든 데다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어들여 백성들의 삶은 더욱 파탄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유랑민과 사망자가 열 명 가운데 여덟아홉 명이나 되어 고을은 텅 비어 잡초만 무성하였다고 기술하였다.²⁹⁾ 심지어 비교적 잘사는 고을의 백성들도 가혹한 세금 징수로 파산하여 유랑민의 신세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다가 굶어죽어 그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인육을 양식으로 먹거나 자기의 육친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여, 왜적의 침탈로 인한 폐해보다는 오히려 폭리의 가혹한 세금수탈이 백성들의 삶을 더 파탄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고발하였다.³⁰⁾ 임진왜란 때 인육을 먹는 참

29) 『炊沙先生文集』卷3, <龍蛇錄>. “自遭亂以來 專廢穡事 癸巳之秋 重以凶荒 農不耕收 財粟殫亡 賦斂酷急 責出無藝 流離死亡 十居八九 邑里蕭然 鞠爲茂草矣”

30) 『炊沙先生文集』卷3, <龍蛇錄>. “完邑之民 亦皆疲於徵斂之酷 相繼破產 餓殍滿路 枕

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선조실록』과 서애 유성룡의 『懲毖錄』에 기록되어 있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여빈의 <용사록>에서는 그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이에 관한 『선조실록』의 1594년 1월 17일자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쓰러져 굶어죽은 시체에 완전히 붙어있는 살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들도 살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른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보고 듣기에 너무도 참혹합니다.³¹⁾

여기서는 백성들이 인육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기근이 극도로 심해서 빚어진 참상이라고만 적고 있으나, 이여빈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참상이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전란과 기근 외에도 전쟁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자행한 폭리들의 가혹한 세금 수탈이 있었음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이외에 이여빈은 시문을 통해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의 절고를 근심하는 심정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였다. <문경 마포원 석굴에 부치는 시 2수(題聞慶馬浦院石窟二首)>는 그가 명나라 군대의 접대를 맡은 支供官으로서 문경역참으로 갔다가 제비가 석굴에 둥지를 튼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지은 시이다.³²⁾ 이때는 명나라 원병이 도착하여 李如松이 이끄는 명나라 군

骸遍野 父母妻子 不相保持 至有食人肉爲糧 甚者至於自食其骨肉”

31) 『宣祖實錄』 47卷, 宣祖 27年 1月 17日, “司憲府啓曰: 饑饉之極 甚至食人之肉 恬不知怪 非但剪割道殣 無一完肌 或有屠殺生人 并與腸胃腦髓而噉食之 古所謂人相食者 未有若此之甚 見聞極爲慘酷”

32) 『炊沙先生文集』 卷1, <題聞慶馬浦院石窟二首> 并序, “時天兵勦滅箕都留賊 兵威所及松都漢京之賊 席卷南下 天兵殿之 余以天兵支供官往聞慶站 見玄禽巢於石窟感而題之 榮倖亦入寧越境 將由江原道遁去 自是愚悍之人 皆以爲無法 不復忌憚 強食弱肉 相刃相鬪 漠然不知有君父有邦憲矣”

대가 충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로(1593년 5월) 왜란이 발발한 후 2년째 접어들었을 무렵이다. 이 시에서 이어빈은 “오래된 고을 처량하니 병란이 있은 후라, 백성들 성곽에서 모두 그릇되었다고 탄식하네.(古縣淒涼兵火後 人民城郭嘆都非)”라고 하여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한숨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난리 이후 기근이 해마다 연이어 계속되었다. 장정은 칼날에 쓰러지고 노약자는 구덩이에 넘어지니 마을이 적막하고 길게 자란 쭉이 눈에 가득하였다. 2백 년 동안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원기를 회복하여 발전해왔는데 이제 장차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남겨진 참상을 목도하고 상심하여 하릴없이 편치 않은 감회를 서술한다.(亂離以來飢饉連歲 丁壯弊於鋒刃 老弱顛於溝壑 邑里蕭然 蓬蒿滿目 二百年休養生靈 將至靡有孑遺 傷心慘目 聊述不平之懷)>고 한 긴 제목의 칠언시에서는 “황폐한 기근 해마다 이어지니, 버려진 백성들이 구덩이에 채워지는 것을 차마 보아야 하네.(凶荒飢饉仍連歲 忍見遺黎溝壑顛)”라고 하였다.

1607년 5월 23일 벽사도 찰방 재임 시에 差使員으로 선발되어 경성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西行長篇>에서는 전라도 벽사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도성에 이르기까지 전라·충청·경기 지역을 지나면서 눈으로 직접 목도한 백성들의 고통을 노래했다.

是時亢陽極 이때 가뭄이 극성하여
到處地皆赤 도처의 땅들이 모두 붉은데
或苗而載枯 혹 묘를 심어도 이에 시들고
或耕而龜坼 혹 밭을 갈아도 땅이 갈라진다.

…… <중략> ……

此旱誰執咎 이 가뭄은 누가 책임을 지나
廟堂有伊呂 묘당에는 이윤과 여상이 있어
展盡調元手 재상의 손을 다 펼쳤을 터인데
胡爲遭此災 어찌하여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났는가!

왜란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조정이 채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극심한 가뭄을 만나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여빈은 전라도에서 충청도·경기도를 지나 도성에 이를 때까지의 상황을 이 시에서 상세하게 읊으면서 각지에서 가뭄으로 겪는 재앙을 근심하고 동정했다. 심지어 조정에는 어진 재상들이 있어서 정책을 잘 펴고 있다면 과연 이 재앙은 누가 자초한 것이란 말인가라는 백성들의 원망어린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였다.

3. 窮養達施의 처세

맹자는 “곤궁하면 홀로 자기 몸을 선하게 닦고, 영달하면 천하를 함께 이롭게 했다.(窮則獨善其身 達則善天下)”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선비가 곤궁한 상황에 처하면 물러나서 자신을 수양하며 때를 기다리고, 조정에 나아가게 되면 천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天下有道則出 無道則隱)”라고 한 공자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조선선비들의 기본적인 출처관이었다. 이여빈이 급제한 을사년(1605) 증광회시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출처관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 곤궁할 때 자신을 수양할 수 있어야 영달하였을 때도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 수 있다는 ‘窮養達施’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에 대해 이여빈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선비는) 오직 평소에 품은 뜻을 홀로 선하게 수양하는 것을 이미 충실하게 한 후에 천하를 겸하여 구제할 때에 심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군자들은 부여받은 천성을 온전하게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곤궁할 때에 입각해서 홀로 선하게 수양하던 때의 뜻을 구하여, 누추한 골목에서도 조용한 즐거움을 고치지 않고, 구차한 때에도 겸하여 선하게 하는 도를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이로써 홀로 선하게 수양하면 몸이 닦여지지 않음이 없고, 이로써 세상에 도리를 행사하면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곤궁할 때의 수양이 바로 영달했을 때의 베풀이고, 영달했을 때의 베풀이 바로 곤궁할 때에 수양이 되니, 어찌 窮養의

실질을 다하여 達施의 도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³³⁾

이와 같이 이여빈은 유가적 관점에서 출처의 도를 철저히 지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생전에 영달하지 못하여 조정에 나아가서 은택을 베풀지 못하고 평생 곤궁에 처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의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선하게 수양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일찍이 17세 때 지은 <문방사우부>에서 이미 독서와 시문을 읊조리는 즐거움에 대해 노래하였는데, 훗날 노년이 되어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때 지은 <문방사우부>의 마지막 문장이 마치 자기 미래의 모습을 예언한 것처럼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시사잡록』 하편에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년에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하였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며 늙어 죽을 때까지 곤궁하게 지낼 것이라 생각했다. 서른여섯 살에 간신히 사마시에 합격하고 원 살에 비로소 과거에 말단으로 급제하였으나 하류로 빠져들어 민머리에 푸른 적삼을 입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³⁴⁾라고 술회하였다. 그는 또한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에 급제되길 바랐으나 말단으로라도 급제한 후에는 속이 너무 후련하여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갈 생각이 없어졌다고 과거급제 후 자신의 심정을 그와 동반 입격한 동향 사람 박선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였다.³⁵⁾ 그는 낮은 벼슬에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동안 잡기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책 보는 것을 늙어서 소일하는 자산으로 삼았다.

이여빈은 1607년 差使員으로 선발되어 상경하면서 지은 <서행장편>의 서

33) 『炊沙先生文集』 卷2, <乙巳增廣會試>. “惟其素抱之志 已實於獨善之地 然後甚大之責可盡於兼濟之時矣 是以古之君子 莫不全其天之所付而盡其職之當爲 立脚於窮居之際 求志於獨善之時 嚚然之樂不改於陋巷之地 兼善之道自修於蓬蒿之初 則以之獨善而身無不修 以之行世而世無不治矣 然則窮之所養者 乃達之所施 達之所施者 卽窮之所養也 寧有不盡於窮養之實 而能合於達施之道哉”

34)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余於中年累舉不中 每思此等語 自分窮困終老而已 三十六僅得司馬 五十始登末第 而沈於下流白首青衫”

35)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登第後謂朴汝仁云 余末第時欲收科第 今得末第心已釋然 無復仕進意”

문에서 “마음이 아주 평온하지 않았다.(頗有不平之懷)”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의 불평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알기 어렵다. 다만 296구의 5언장편 가운데서, “문을 나서서 두 아들을 이별하니, 마음이 침울하고 난처하다.(出門別二子 黯然難爲情)” “말없이 많은 일들 생각하니, 마음속이 평안한 길이 없다.(默念多少事 方寸無由平)”라고 하면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과 원망을 여러 군데서 노래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변 상황들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구에서 머지않아 관직을 버리고 타인에게 구속되지 않겠다고 하여 그는 이때 이미 ‘歸去來’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李光庭은 행장에서 그가 노모를 보살필 길이 없어 밤낮으로 근심하였다고 하였다. 즉 그가 관직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홀로 노환으로 고생하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³⁶⁾ 이 시기에 지은 <題狄仁傑望白雲圖> 시에 그러한 당시의 그러한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遙知白髮親 멀리서도 안다 백발의 모친이,
倚門朝復暝 아침과 저녁마다 문에 기대어 있을 줄,
今余念母切 지금 나는 어머니 그리워함이 간절한데,
母正思我勤 어머니 나를 생각하심에 부지런하시네.

그런데 벽사도 역참에서 지은 <述懷詩>에서, 가을 매미처럼 높은 나무를 찾아 맑은 이슬을 마시지 못하고, 지렁이처럼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며 세상의 비린내와 누린내를 구하는 자신을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부끄럽게도 자기는 선비들 중에 부패하고 세속적이라서, 의식주 때문에 분주하여 속인들 따라 주위를 맴돈다고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였다.³⁷⁾ 이로써 보면 그는 초연히 자취를 감추고 세속을 떠나 고결하게 행동하려고 관직을 버렸으며, 꼭 노모

36) 『國譯炊沙先生文集』,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5, 391쪽.

37) 『炊沙先生文集』 卷1, <述懷詩>. “恨我不能如寒蟬 尋高樹飲清露 自放於五月之炎天 恨我不能如蚯蚓 食槁壤飲黃泉 無求於人世之腥膻 愧我爲儒之腐土之俗 奔衣走食隨俗子而周旋”

를 봉양하기 위해 귀은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40세에 지은 <次歸去來辭>에서 산속의 작은 길옆에 띠풀집을 일구고 밭을 개간하여 김을 매며 이목구비를 단고 지낼 생각을 간절하게 표출하였다. <귀거래사>는 도연명이 41세에 팽택현령을 끝으로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온 뒤에, 자신이 그렇게 귀은하게 된 배경과 당시의 심경, 깨달음과 앞으로의 각오 등을 서술한 글이다. 그런데 이여빈의 <차귀거래사>는 도연명과 비슷한 나이에 지은 것이긴 하지만 아직 대과에 급제도 하지 않아 정식으로 관직에 진출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노래한 것은 다소 어불성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서문을 읽어보면 그가 이 시기에 왜 <차귀거래사>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차귀거래사> 并序에 의하면 그는 그때(1595) 처음으로 퇴계 이황이 편찬한 『朱子書節要』를 읽고 학문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을 <귀거래사>에 차운했다고 하였다.³⁸⁾ 그는 36세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이 시기에 대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전란 중이라 대과 응시가 용이하지는 않았기에 피난생활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주자서절요』를 통해 성현이 학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입신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수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즉 도연명이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귀은하였다면, 이여빈은 성리학적 자기공부를 완성하기 위해 귀은을 소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여빈은 처음에는 자신의 호를 晩翠라고 하였다가 만년에 炊沙로 바꾸었다. 여기에는 입신과 귀은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의 자서전인 <炊沙老翁傳>에 의하면 그는 젊은 시절에는 천천히 자라지만 늦게까지 푸르름을 머금고 있는 소나무처럼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뜻

38) 『炊沙先生文集』 卷1, <次歸去來辭> 并序. “余於乙未歲始讀朱子書節要 乃退溪李先生所刪定也 其書無非一時知舊門人問答之語 雖其人稟各異 問辯不同 其所以抑揚導救 莫不期於大中至正之歸 則實學者用工本領之地頭 規模廣大心法嚴密讀之 令人有如嚴師畏友對越於前 雖以余之昏惰不能無警發於心矣 於是始知聖賢爲學之意 而悼前日迷路於記誦詞章之習 輒效藍田擬招之意 次靖節歸去來之作”

으로 ‘만취’라는 호를 취하였지만, 막상 노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보니 박봉의 말단 관리로서는 노모도 봉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호를 ‘취사’로 바꾸었다. ‘취사’는 모래로 불을 때서 밥을 짓는다는 뜻으로 모래는 아무리 불을 때도 밥이 될 수 없으니 결국 평생에 걸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뜻에서 그것을 호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면서 자잘한 모래도 계속해서 불을 때다 보면 밥이 되는 것은 보지 못해도 문드러져서 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³⁹⁾라는 희망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길가에 누운 소나무(題路上盤松)> 시에서 길가에 누운 굵은 소나무는 “설령 棟樑으로 충당되는 못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그늘을 되어줄 수 있으리.”⁴⁰⁾라고 노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여빈은 감곡에 와서 산 지 30여년이 지나 58세(1613)에 이르러 후한시대의 申屠蟠이 은거하여 나무를 심어 집으로 삼은 뜻을 본받아 정자의 이름을 因樹亭이라 하였다. 물론 이때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안동·상주·진주 등지에서 향교제독을 맡기도 하였지만 조정으로 나아가서 출사하지는 않았다. 계해년(1623) 인조반정 후에 한적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복직되었을 때, 그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의 길에 들어설 기회를 만들 수 있었지만, 향교제독으로서 지방 유생들의 교육에 힘쓰면서 그러한 욕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만년에 거처하던 집을 夕陽窩, 집 앞의 연못을 濯纓池라 하여 끝까지 벼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좌우에 책을 가득 쌓아두고 도를 즐기며 분수에 만족하였다. 그는 직접 붉은 도화나무 한 그루를 집 뒤에 심어놓고 그 아래에서 시가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한 삶을 보냈는데, 이로써 그는 혼탁한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거부하고 조용히 물러나서 窮養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몸을 선하게 수양하는데 치중했던 것이다.

39) 『炊沙先生文集』 卷2, <炊沙老翁傳>, “以翁享壽之久炊其沙礫之細 雖不能見其成飯 豈不至或爛而爲糜哉”

40) 『炊沙先生文集』 卷1, <題路上盤松>, “縱然未得充棟棟 猶蔭行人頃刻間”

IV. 맺음말

『취사선생문집』은 모두 6권 3책으로 賦 2편과 시 66수, 상소문 4편, <용사록>·<시사잡록>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상소문과 <시사잡록>·<용사록> 등을 중심으로 그의 현실인식과 실천정신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의 현실인식은 주로 <시사잡록> 상·하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있다. <시사잡록> 상편에서 그는 정여립 모반사건과 기축옥사, 이몽학 모반사건, 길운절 모반사건, 영창대군의 탄생과 죽음, 인조반정, 내관 민희건의 살해사건, 문경 조령의 은상인 살해사건과 김제남의 역모사건, 영창대군의 사사와 인목대비의 유배, 이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참담한 이야기(이덕형의 죽음, 정운의 유배 등)들을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시사잡록> 하편에서는 주로 과거제도의 폐단과 과거시험의 부정부패, 매관매직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에는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난세에 처한 자신의 입장도 표명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과거시험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차라리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상당히 냉철하면서도 진보적인 현실인식과 비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실천정신은 한미한 시골 선비로서 목숨을 걸고 읍소한 상소문과 우국상세의 기록인 <용사록>, 궁양달시의 처세 등에 잘 나타나있다.

정유년(1597) 가을에 왜적들이 다시 군대를 풀어서 호남을 함락시키고 경기도와 충청도 등지를 거의 모두 유린하여 온 나라 안이 다시 전란에 휩싸이게 되자 그는 포의의 신분으로 붓을 들어 선조에게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왜군을 정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임금의 처신 여하에 따라 민심의 이합이 달려있으니 임금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잘 진작시킨다면 충분히 왜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에게 있어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나라에 있어서 임금은 백성의 희망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여빈의 집안은 대대로 절의를 숭상한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광해군 2년에 성균관 전직에 임명되었으나 광

해군의 왕위등극과 이이첨 등의 국정농단에 불만을 품고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 이성재는 아예 출사를 거부하고 과거조차 보지 않은 것으로써 선조의 적통인 영창대군에 대한 절의를 지켰던 것이다. 이여빈이 광해군에게 올린 나머지 세 편의 상소는 바로 그러한 절의정신에 입각해서 광해군과 대북파의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질책한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안집사 김륵의 항전 독려 활동을 보좌하면서 당시의 전란 상황을 <용사록>에 남겼다. 그는 여기에서 영주를 비롯한 경상우도 뿐만 아니라 경상좌도를 비롯한 타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상에 대해 기술하면서 왜적의 침탈로 인한 폐해보다는 오히려 폭리의 가혹한 세금수탈이 백성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용사록>은 바로 유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국난의 시기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편의 시문을 통해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의 절고를 근심하는 심정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였으니 <문경 마포원 석굴에 부치는 시 2수(題聞慶馬浦院石窟二首)>와 <西行長篇> 등이 대표적이다.

그가 65세에 상주제독에 부임하였을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놀리며 말하기를, “그대의 동향 사람들 중에는 높은 관직에 오른 자가 많은데 그대는 어찌하여 홀로 이렇게 출세하지 못했는가?”⁴¹⁾라고 묻자, 그는 “그들이 출세하고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각각 달라서 그러한데 서로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나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였네.”⁴²⁾라고 대답하였다. 만약 그가 출세를 원하였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혼탁한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출세를 위해 도의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인조반정이 성공한 후에 한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복직되었지만 그는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 감곡에 은둔하여 知足安分の 삶을 살았다. 즉 그는

41)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君同邑人多騫騰顯要者 子何獨沈滯若是耶”

42) 『炊沙先生文集』 卷5, <時事雜錄>下. “彼自顯要 我自沈滯 命各不同 何以相及哉 余則未得其策也”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절개를 굽히지도 않았으며, ‘곤궁할 때 자신을 수양할 수 있어야 영달하였을 때도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 수 있다’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본적인 출처관인 窮養達施의 도리를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종합DB.

『光海君日記』, 한국고전종합DB.

『宣祖實錄』, 한국고전종합DB.

『仁祖實錄』, 한국고전종합DB.

李汝積, 『炊沙先生文集』 정상홍 등, 『國譯 炊沙先生文集』,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6.

강구을 등, 『國譯 榮州三邑誌』, 소수박물관, 2012.

朴承任 저, 이동길 등 역 『嘯臯先生文集』, 韓國國學振興院, 2010.

김장환, 「취사 이여빈의 상소문 연구」, 『한국선비연구』 제4집,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6.

권경록, 「炊沙 李汝積이 만든 心象空間, 鑑谷」, 『東洋漢文學會』 제44집, 동양한문학회, 2016.

Abstract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spirits of practice in Lee, Yeobin

Kim, Duk-hwan

This paper analyzes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spirits of practice of Lee Yeobin as reflected in his anthropology of literary works. Lee Yeobin was a literary academic originating from Yeongju, Gyeongbuk Province, Korea. Not only is he less known to the academic community, but theses on him are very rare. While his works are briefly introduced in various literary analysis books, list of notable figures, regional cultural papers or mass media, most of them are a brief compilation of his works in his anthology. As such, their content are very similar to one another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that makes a mark in findings.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Sisa Jabrok”(時事雜錄) and “Yongsarok”(龍蛇錄), as well as poetry listed in his anthology while excluding his official letters to review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spirit of implementing what he believed in. At the same time, a focus is placed on his lesser known activities and philosophy.

First, his perception of reality is mostly shown in the first volume and second volume of “Sisa Jabrok”. In the first volume, he addresses Kichuk Oksa(己丑獄事), the death of prince Youngchang, the incarceration of Queen dowager Inmok and the coup d’etat to install

Injo as king. The second volume addresses the issues with the existing selection process for the king's advisors, corruption within the system and the practices of purchasing royal titles or advisory roles. He took a critical and progressive view to these issues and offered harsh criticism.

His spirits of practice is well represented in his poetry, as well as “Yongsarok” that recorded the crueltie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year Imjin. He described the resistance movement in not just the region currently known as Gyeongsangbuk Province including Yeongju, but also in what is currently known as the region of Gyeongsangnam Province and commented on the results. While describing the harsh realities faced by regular people, he pointed out that rather than the damages caused by the invasion by the Japanese, it was the heavy burden of taxes that deprived citizens of a proper life. “Yongsarok” is the compilation of the thoughts and criticisms of a literary academic who had studied the teachings of Confucius and who felt he had the obligation to present a forward-looking view for the country in times of difficulty. In addition, he expressed his various thoughts through a number of poetry, including his concerns about the country as a whole and the suffering of regular citizens.

Lastly, his views on how to apply the teachings of Confucius to everyday life also reflect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spirit of implementation. He could have become very successful in monetary and honorary terms but he never abused the system to get ahead of others. After the coup d'état to install King Injo succeeded, most advisors who had gone into reserve were restored to their previous

posts but he lived as a hermit leading a modest life. He did not pander to selfish interests or abuse the system for personal gain, but focused on implementing his belief that ‘One can offer help and grace to regular citizens even when one is in poverty because that is when one can refine his personality’. This was in line with the core beliefs of academic scholars of the Josun Dynasty, often referred to as Gungyang Dalsi(窮養達施).

Keywords

Chwisa, Lee Yeobin, the works of Chwisa, Anthology of Chwisa, Yongsarok, Sisa Jabrok, academic scholar of Yeongju